

## 교정제도를 운영하는 일선실무자로서 소회 (所懷)



계량계측과 사무관 김 홍

### 1. 머리말

지난 1998년 아·태시험소인정기구의 국제평가단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에 대해 평가를 받고 나서, 현 기술표준원의 전신인 국립기술품질원에는 조그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대로는 도저히 각종 국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원내 썩트고 있었고, 필자 또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국제평가단으로부터 우리교정제도에 대해 불신을 받게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을 쇠신하던 차에, 필자는 1999년부터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담당자로서 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교정업무를 접하게 된다.

사실은 처음 필자의 전공과 달라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거부감이 있었으나, 한 동안 깊은 고뇌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마음 깊숙히 굳은 결심을 하고 교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정업무는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그에 관계되는 모든 이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운영하여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주인은 교정기관에 종사하는 교정요원들이며 그들이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겠다’고 말이다.

### 2. 교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도와 2001년을 돌아켜 보면 정말 험없이 앞만 보고 달려 왔었다.

우리의 교정기관인정제도를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령과 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우리교정기관과 현장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누구한테도 이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수준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교정기관 평가를 시작하였으나, 막상 현장평가 시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교정제도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평가 시작시간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하에, 지방에 있는 평가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해 하늘의 별을 보고 평가단과 함께 새벽 3~4시부터 서울을 출발하는 일은 다반사였으며, 일일평가는 보통 평가계획보다 더 길려 저녁 8시에 끝날 평가가 평가기관 양해하에 밤늦게까지 평가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모 기관 평가 시에는 심지어 새벽 3시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사는 평가자료정리를 위해 밤을 새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곤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된 현장평가 속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평가결과 치명적인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교정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하고 나서 평가단은 마음이 몹시 무거워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힘든 평가과정을 보고받은 평가기관의 경영자로부터 오히려 평가결과에 대해 흔쾌히 만족하며 참다운 평가를 받았다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껏 우리나라의 각종 심사, 감사,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관이나 평가사 모두가 합부판정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지, 심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호응을 얻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평가과정이 철저하게 교정실무자인 교정요원의 실질적인 기술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여 현장평가의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는 현장평가를 대비하여 보통 최소 1년 이상 밤늦게 까지 준비하고 평가기간 중에도 모든 교정요원이 밤샘을 하며 평가에 응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 후에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도 속출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는 평가를 받고 나서 오히려 평가사들에게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으며, 평가사 또한 평가수당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 정밀측정 산업에 이바지하였다는 강한 자부심과 부듯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렇게 현장평가과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정요

원들이나 교정기관에서 현장평가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평가기간 중에 해당기관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고된 평가과정을 통해 직원간에 서로 호흡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정요원은 현장평가를 통해 이제는 제대로 하려면 평생을 교정기술력축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되고, 현재의 자기 기술력에 대해 냉철히 반성하는 기회가 되곤 하였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을 평가할 때는 평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옛 동료로부터 오해와 질시를 감수하면서까지 타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원칙대로 평가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평가에 임해 필자의 마음이 몹시 무거웠으나, 다행히도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였는지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동료들은 오히려 평가를 통해 자기 기술력을 축적하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마워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평가과정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필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국제기준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만족하는 교정기술력이 있는 교정기관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정밀측정기술력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관도 이 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정기관에서는 그간 단순 기능위주의 교정업무를 수행하여 왔

으며, 교정성적서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교정성적서 내용보다 교정필증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교정기관에 대한 현장평가가 부적합사항을 다수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평가 후 귀가할 때는 모든 평가사가 몹시 우울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와 평가결과가 치명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심한 스트레스와 고뇌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간혹 현장평가에서 합격한 교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모든 평가사들이 내 일 인양 몹시 기뻐하고 보람과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또한 현장평가를 거듭할수록 다행인 것은 평가결과에 대해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관이 많았으나, 차츰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잡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평가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교정요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신분상 보장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통 교정요원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여년 정도 소요되는 데 이는 의사가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같으며, 의사의 전문지식과 같은 수준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정요원에 대한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 교정수수료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심지어 생산원가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교정기관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맞추기 위하여 능력 있는 교정요원보다 일정한 조건만 갖춘 교정요원을 채용하여 부실한 교정성적서를 남발하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근본적인 교정서비스시장의 구조변화가 없이는 교정요원과 교정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으로 향상된 기술력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정확한 교정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시 기술기록과 성적서발급 내역에 대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 부실한 교정성적서가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인정된 교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정성적서에 신뢰를 한층 더 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행히, 금년 2월 교정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정기관은 현재 우리 KOLAS 사무국 직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응답기관 74%에서 현장평가과정이 힘들었으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왔다.

이제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외형적인 형태는 완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제는 질적인 기술력을 명실상부하게 미국, 유럽 최 선진 수준으로 향상하는 길 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시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껏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계량계측과 조천행 과장님과 정락훈 사무관 그리고 필자와 나한균 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 격렬한 토론을 하고 나서 속 상할 때도 많았으나, 다 같이 우리 교정업무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교정업무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 만큼 ‘우리 교정제도에 대해 자타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천행 과장님의 최 선진 측정불확도산출방법에 대한 지식전파와 정락준 사무관의 합리적인 운영체계구축과 필자와 나한균 직원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적용 등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하모니가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 3. 교정제도 운영 방향을 생각하면

교정제도를 운영한 일선실무자로서 교정제도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간 교정제도 발전 발자취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 ○ 교정제도 운영 목적

- 시험/측정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 확보와 정밀측정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한

#### ○ 기대 효과

- 산업체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 시험/측정결과에 대한 무역상 기술장벽을 제거할 수 있음

#### ○ 활동 기본 방향

- 시험/측정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확보를 위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여 운영하고
- ILAC회원국으로서 ILAC규정과 상호인정협정을 충실히 준수하며
- 우리의 정밀측정기술력을 최선진 미국/EU수준

으로 향상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 전문기술력위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해 산업체의 정밀측정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제 1 단계(1999년도)

- 국제기준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등 법령과 지침을 정비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KOLAS운영 품질시스템을 구축
- 교정기관 평가사 등록 및 현장평가 세부방침 정립

제 2 단계(2000년도)

- ISO/IEC17025 등 국제수준에 의한 교정기관 현장평가실시  
( 총 13개 기관에 대해 교정기관으로 인정 )
- 교정기관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해 국제평가단으로부터 평가
- 국제기준에 의한 제도완비

제 3 단계(2001년도)

- ISO/IEC17025 등 국제수준에 의한 교정기관 현장평가실시  
( 총 87개 기관에 대해 교정기관으로 인정 )
- ILAC과 교정분야 상호인정협정체결(2001.5.22일)
- 측정불확도평가등 교정기술력 EU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기술책임자 전파교육확산 및 분야별 워크샵 활성화

제 4 단계(2002년도)

- ISO/IEC17025 등 국제수준에 의한 교정기관 재평가완료  
( 최종 150개 국제교정기관 운영계획 )
- 철저한 사후관리로 교정기관에 대한 국제신인도

제고

- 실질적인 측정기술력 향상을 위해 비교속련도 활성화
- 분야별 워크샵 활성화 및 기술전문가 그룹 구성
- 평가사 재평가 및 재분류
- 선임평가사에 의한 평가반장 역할 수행
- 교육기관운영 내실화
- 교정수수료 및 평가수당 현실화
- 기술직원에 대한 공식 등록 관리
-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중 불합리 부분 개선 제 5 단계(2003~2004년도)
- 산업체 현장 자체교정지원강화
- 광통신분야 등 최선진수준에 못 미치는 측정분야에 대한 기술력확보
- 최선진 측정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밀측정기기 개발체제 구축
-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연계하여 공인성적서 활용 강화
- 논문, 시험분석성과 발표시 소급성 입증자료 첨부요구

#### 4. 맺음말

이제 교정업무를 수행한 지난날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고 보람을 많이 느낀다.

이는 기술표준원 KOLAS에서 운영하는 교정기관 인정제도가 평가기법뿐만 아니라 기술력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느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통순경이 함정단속으로 과속위반자를 적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듯이, 우리 교정

제도에 대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

교정기관은 정밀측정전문기관으로서, 교정요원은 정밀측정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교정산업 발전과 교정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교정요원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정밀측정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바지할 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교정제도 성패의 핵심은 교정요원이 얼마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느냐와 교정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다.’

교정요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들이 스스로 교정제도 운영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우리 교정제도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완벽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교정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에 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제도의 주인은 교정기관과 교정요원 둘이며, 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향상된 기술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한 명석을 깔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필자가 교정업무를 수행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방향이고 또한 필자가 느끼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다.

‘필자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KOLAS 모든 직원이 교정요원과 한 마음이 되어 진정으로 교정기관과 교정요원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교정업무를 대할 때, 우리 교정제도에 대한 신뢰는 구축될 것이고 교정산업 발전의 싹은 틀 것이다....’

